

붙임 2. 실험참가 피해학생이 작성한 경위서 사본.

경 위 서

본인 []는 20[]년 한국체육대학교 []과 []학년 재학시절에 김창근 교수님의 운동생리학 수업을 들었습니다. 그 때에 김창근 교수님은 [] [] [] [] 실험에 참여할 대상자'를 모집한다는 설명과 함께 실험에 참가할 경우에는 본인의 근성유 타입 결과를 확인할 수 있음을 물론 서의 확정을 부여하겠다고 하였습니다. 따라서 본인은 김창근 교수님의 참여 권유에 의해 근육채취대상자로 실험에 참여하게 되었습니다. 근육채취의 방법은 오른쪽 대퇴부를 국소마취한 후 대퇴부의 근육을 절제해서 근육을 떼어내는 실험이었습니다. 그러나 대퇴부를 절제한 후에도 피가 멈추지 않았고 심한 통증이 있어서 저는 김창근 교수님께 그 사실을 말씀드렸더니 "곧 피가 멈출 것이니 오늘은 운동하지 말고 휴식을 취하라"고 하였습니다.

하지만 근육채취검사 이후 다음 날에도 오른쪽 대퇴근의 감각이 없고 오른쪽 발을 디딜 수가 없어서 다시 김창근 교수님을 방문하여 상황을 말씀드렸더니 "일시적인 현상일 수 있으니 조금만 더 기다려보고 이런 현상이 지속되면 병원에 가보라"고 말씀을 하였고, 그 이후에 저에게 별다른 말씀이 없었습니다.

저는 계속되는 통증으로 병원을 방문한 결과 신경이 심하게 손상되었고, 근육이 찢어졌다는 진단을 받게 되었고, 지속적인 치료와 더불어 휴식을 취해야 한다는 의사의 소견을 받았습니다.

저는 당시 국가대표 [] []였지만 통증과 신경이 마비되는 현

상으로 운동을 지속하지 못했을 뿐만 아니라 [REDACTED] 국가대표가 되기 위한 공도 절계 되었습니다.

이후 꾸준한 치료로 인해 현재 통증이나 신경마비 증상이 조금씩 호전되고는 있지만 오른쪽을 제대로 디딜 수 없는 상황에서 영발의 피로감 등이 증반되고, 또한 걸프 등의 큰 동작을 할 수가 없고, 현재에도 운동을 하면 장강이 부위에 열이 나고 심한 부종과 함께 통증이 나타나 제대로 걸을 수가 없는 상황이며, 추위가 심해지면 그 부위에 신경통 증상이 발생하곤 합니다.

올론 지도를 해주시는 교수님의 부락과 함께 학공에 속심이 있어서 심형에 응하기는 하였지만 추배들에게도 다시는 이러한 경우가 발생되지 않기를 바라는 마음입니다. 꼭 이러한 실형을 해야 한다면 저와 같이 후유증에 시달리는 경우가 없기를 간절히 바라는 마음입니다.

2013년 [REDACTED]

[REDACTED]